

# 순천시, 기업 친화 정책...민생경제 회복 힘 모은다

## 기업 지원 정보 한 곳에...‘기업지원포털’ 정식 오픈 중소기업 지원 조례 개정 등 동반성장 프로젝트 가동

순천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며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기업지원포털

을 구축해 22일 정식 오픈했다.

기업지원포털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순천시 전략사업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기업·제품 홍보 ▲기업에 로직수 규제신문고 ▲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정보와 기능들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금융비용 감경을 위해 이자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 기존 융자 한도를 3억원에서 최대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 지원율을 3%에서 4%로 상향했다.

또한 우대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청년, 향토 기업까지 확대해 0.5%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전남 최초로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수수료 12%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저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금융채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정부 지원을 넘어 시 차원에서 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과 기업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순천경제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성장사다리 구축 ▲주력산업 부가가치 창출 ▲산업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체감형 업무 혁신 4대 분야로 나눠 총 37개 사업에 약 14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0년 이상된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육성해 인증서·현판을 수여하고,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관내 강소기업에 사업화 및 마케팅 사업비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순천시는 민선 8기 현재까지 13개 기업을 유치해 1천300여명의 투자유치와 1천6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2조원의 투자유치와 2천명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유치를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치한 윤촌제1산단 한화에

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조집장이 오는 3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한화오션 에코텍은 시설공사를 착공해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지역 인재를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 광양 다압면 소학정 매화 귀한 꽃망을 ‘톡’

### 전국서 가장 먼저 피는 꽃...붉은 잎 물글물글



광양시는 23일 “입춘을 열흘 남짓 앞둔 지난 21일 광양매화마을의 소학정 매화나무가 귀한 꽃망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소학정 매화는 해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늦었지만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지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붉은 꽃망울을 물글물글 매달고 있으며, 가장 먼저 핀 매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김미란 관광과장은 “빛과 별의 도시 광양은 수은주가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고로쇠나무에 물이 오르고 가장 먼저 매화 꽃망울을 터뜨리는 태동의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제2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매화 피는 순간, 봄이 오는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풍성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안전하고 신나는 축제를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학정이 있는 광양매화마을은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3년 연속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광양=양홍철기자



장성군 공직자들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상가 이용 챌린지’에 나섰다. 사진은 김한중 군수가 ‘챌린지’ 첫 주자로 공직자들과 지역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불어 넣고 있는 모습. <장성군 제공>

## 여수시, 안전 육묘 위해 벼 종자 발아력 검사 무료 지원

### 내달부터 농업기술센터 병해충진단실 신청

여수시는 23일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안전한 육묘를 위해 벼 종자 발아력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종자의 발아력은 태풍과 수확기 기상 조건, 콤팩트 수확 속도, 건조 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자가 종자를 이용하는 농가는 검사 후 활용하는 것이 육묘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부터 4월까지 벼 종자 45kg(종이컵 3컵 분량)을 채취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병해충진단실에 제출하면 되며,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

61-659-4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발아력 검사를 통

해 지역 농가의 육묘 실패를 사전 예방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안정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설 연휴 고흥 녹동항 ‘드론쇼’ 보러 오세요”

### 26일 바다정원 일원서 1천500대 규모 해상 불꽃 드론쇼

고흥군은 23일 “오는 26일 설 연휴를 맞아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드론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에는 1천500대 규모의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가 진행된다. 특별히 드론에 불꽃을 부착해 화려함

을 더한 불꽃 드론쇼도 펼쳐질 예정이다.

드론쇼는 민속놀이와 2025년을 상징하는 청사(靑蛇) 등의 콘텐츠로 꾸며지며, 행사 당일 낮에 제기, 굴렁쇠, 투호 등을 녹동항 바다정원에 비치해 관광객들이 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드론쇼의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범안전자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행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행사장 주변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옛새나 되는 연휴 기간 고흥을 찾는 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드론쇼 콘텐츠에 더욱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 장흥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 최대 50만원...내국인 20인·외국인 10인 이상

장흥군은 23일 “문화·예술·관광 융성의 해를 맞아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 내국인 2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인센티브 지원 규모는 본예산 기준 2억원이다.

여행사는 장흥군 내 관광지 방문과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당일 여행은 버스 1대당 최대 30만원, 숙박 여행은 최대 50만원을 거리에 따

라 차등 지급한다.

여행사는 계획서를 여행일 3일 전까지 장흥군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자 방문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흥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된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 “지역경제 살리자” 장성군, 지역 상가 이용 챌린지

### 내달까지 진행...지역민 참여 동참 유도

장성군은 “최근 공직자들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상가 이용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상가 이용 챌린지’는 장성 지역 상가를 이용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로, 군 공직자들이 직접 기획했다. 설 명절 맞이 장성사랑상품권 15% 할인 등 군의 소비촉진 정책도 홍보한다.

첫 시작은 김한중 장성군수가 맡았

다. 김 군수는 지난 17일 공직자들과 지역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함께 커피숍을 찾았다.

이후 군청과 읍·면 공직자들이 지역 상가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골목상권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장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수익을 떠나, 군 공무원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고자

애쓰는 마음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장성군의 ‘지역 상가 이용 챌린지’는 오는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단체, 기업 등 지역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장성경제 회복에 다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태기자

## 담양군, 설맞이 고흥사랑기부 답례품 추가 이벤트

### 31일까지...죽녹원 숙박권 자동 응모도

담양군은 23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뽕부(Bamboo)’의 고장, 담양이 드립니다, 푸른 뽕의 해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고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일반기부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참여자 및 지정기부(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참여자를 각 20명씩 추첨한다.

이 뿐만 아니라, 푸른 뽕의 해를 맞아 추가로 뽕피 기부자 10명을 추첨해 답례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3명에게는 ‘죽녹원 1박 숙박권’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벤트는 기간 내 고흥사랑기부 누리집을 통해 기부 후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담양=정승군기자

## 구례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 25-30일 ‘상황실’ 운영...신속 대응 체계 가동

구례군은 23일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설 연휴 전에는 사업장의 환경오염 사고 사전 점검·예방 조치 등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감시 상황실’을 운영해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

침이다.

구례군은 특별감시 기간 고의·상습적으로 폐수 및 가축분뇨 등을 무단 방류하는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설 연휴 취약 시기를 악용한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시행동을 강화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